

최연의 산 이야기 <1> 연재를 시작하며

산은 어머니의 마음으로 모두를 감싸 안는다



풍수·풍속·산에 기댄 사람들을 만나는 인문지리

동양에서는 세상 만물을 하늘(天)과 땅(地)과 사람(人)의 유기적 관계로 파악하고 있다.

하늘이 때 맞춰 햇빛과 비와 바람을 내려주고(天時), 땅은 하늘이 내려준 기운으로 자양분(營養分)을 만들어 인간을 비롯한 땅에 기대어 사는 수많은 생명들의 삶을 이롭게 하고(地利), 하늘과 땅이 배편 풍요로운 삶의 터전에서 인간은 함께 일하고, 나누고, 즐기며 화목하게(人和) 살아간다고 보았다.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삶의 터전으로서의 땅은 크게 보아 산(山)과 강(江)으로 이루어졌다.

두 산줄기 사이로 물길 하나 있고 두 물길 사이로 산줄기 하나 있듯이 산과 강은 영원히 함께 할 수밖에 없는 맞물린 역상관계(逆像關係)이다.

그래서 이 땅을 칭할 때 산과 강을 합쳐 강산(江山) 또는 산천(山川)이라고 한다.

“산은 물을 건너지 못하고 물은 산을 넘지 못한다”라는 <산경표>의 명제에 따르면, 산줄기는 물길의 울타리며 물길은 두 산줄기의 중심에 위치한다.

두 산줄기가 만나는 곳에서 발원(發源)한 물길은 그 두 산줄기가 에워싼 곳으로만 흐르는데 이를 유역(流域)이라 하며, 사람들은 이곳에서 산줄기에 기대고 물길에 안기어(背山臨水) 삶의 터전인 ‘마을’을 이루며 살아간다.

‘마을’에서 볼 때 산줄기는 울타리며 경계(境界)인데 물길은 마당이며 중심(中心)이다. 산줄기는 마을의 안쪽과 바깥쪽을 나누는데 물길은 마

을 안의 이쪽저쪽을 나눈다.

산이 건너지 못하는 물길의 이쪽저쪽은 나무로 건너고 물이 넘지 못하는 산줄기의 안쪽과 바깥쪽은 고개로 넘는다. 그래서 나무와 고개는 ‘마을 사람들’의 소통(疏通)의 장(場)인 동시에 새로운 세계로 향하는 희망(希望)의 통로(通路)이기도 하다.

산(山)에 대한 인식은 동양과 서양이 큰 대조를 이룬다. 동양에서는 산에 들어(入山) 안기어 하나가 되려 하는데, 서양에서는 올라(登山) 타서 정복하려 한다. 동양의 산에 대한 인식은 천시(天時)의 기운을 받아 풍부한 자양분을 만들어 지닌 지리(地利)로서 이해되기 때문에, 산에 든다(入山)는 것은 다양한 동기에도 불구하고 하나 같이 부족함을 채우려 어머니 품에 안기는 자식의 심정일 수밖에 없다.

수련을 통하여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깨달음을 얻고자 산에 든 수행자들, 풍년을 기약하고 마을과 가정의 평안을 기원하며 하늘과 땅에 치성을 드리러 산에든 ‘마을 사람’들, 잘못된 질서를 혁파하고 대동의 새로운 세상을 열고자 장의(倡義)하였으나 결국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몸 하나만 겨우 건사하여 산으로 숨어든 숭한 혁명가들, 가렴주구에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살아보려고 노력해도 탐관오리들의 착취에 더 이상 못 견뎌도 적질이라도 하려고 화적당이 되려고 산에 숨어든 신산스런 삶의 백성들, 그러나 때론 거들먹거리며 산천경계를 유럽하러 산에 든 양반네들도 있

었으나 산은 어머니의 마음으로 모두를 감싸 안아 주었다.

그래서 이번 연재를 통해서 산의 웅대함과 강의 유장함이 마을과 조화롭게 자리 잡은 모양새와, 이런저런 이유로 산에 들었던 다양한 사람들이 산속에서 살면서 이루어 놓은 삶의 궤적과, 산에 기대고 강에 안기어 마을을 이루고 사는 사람들의 풍습과, 마을의 내부와 외부의 소통의 통로인 고개와 나무에 얽힌 사연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당연히 이야기의 중심은 산으로 하고 그로부터 파생된 풍수지리, 마을 풍속, 산에 들었던 사람들이 남겨 놓은 문화적인 유산을 인문학적으로 접근해 보고자 한다. 아마 산에 대한 인문 지리적 이해가 이번 연재의 핵심내용일 것이다.

이야기의 중심이 될 산은 펼쳐져 있는 독립된 봉우리가 아니라 끊임없이 이어지는 산줄기의 한 부분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 다룰 산은 산줄기와 물길과 마을과 그곳에 기대어 사는 사람들의 진솔한 삶이 한데 어우러진 것으로서 이야기 전개될 것이다.



최연

아시아네트워크 이사장, 불교환경연대 부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전 사무총장 역임. 산문집 <맑은 물도 깊게 건너라>.

유승도의 산에 산에 피는 꽃은

겨울비 내리는 날에

조용히, 겨울비가 내린다. 얼었던 땅이 말없이 녹아, 내딛는 내 발을 질척질척 잡는다. 읊지에 허연 빛으로 누웠던 눈도 말끔히 자취를 감췄다. 흙이 되어 가는 낙엽과 풀들이 젖은 몸으로 지난 시절을 말하고 있지만 푸르름의 소리들은 들려오지 않는다.

머리를 적시는 빗방울을 개의치 않고 집 주위의 산등성이와 숲을 둘러보다가 방으로 들어와 창가에 앉았다. 산 아래 골짜기에서 구물구물 몸을 일으킨 안개가 거무튀튀한 땅을 덮으며 나를 향해 오른다. 곧 내가 사는 산 중턱의 오두막도 그 안의 나도 안개가 됐다. 세상은 적막한 가운데 흐름이 멈춘 것만 같다. 그것도 잠시였다. 한복을 차려입고 춤을 추는 여인이 슬쩍 치마의 한쪽을 들어올리듯 벌거숭이 나무들을 슬쩍 드러내다가 싶더니 안개도 그만 산 위로 올라간다.

유난히 추웠던 올 겨울도 그만 물러나려는 것일까? 나의 바람과는 상관없이 때가 되면 오는 봄이건만, 은근슬쩍 기다려지기도 했던 예년과는 달리 올 해는 기다림마저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다. 오랜 오해는 대로 맞이하면 그뿐, 기다리는 마음도 거부하는 마음도 나를 떠났다. 할 수만 있다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바라보며 살고 싶다. 현실을 회피하고 싶지 않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모습 그대로, 내게 다가오는 세상의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싶다. 나의 어제와 오늘 또한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은 상태로 받아들이고 싶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내가 긍정하지 못한다면 나는 누구일 것인가?

방구석 어딘가에서 겨울을 나고 있던 파리 한 마리가 은신처에서 나와 유리창에 붙어 기고 있다. 영급영급, 밖으로 향하는 몸짓이 어설픈 것이 정신없이 거니는 모양새다.

어수룩한 파리의 모습에 눈길을 주고 있자니 지난 날의 내 모습이 검은 등에 걸쳐 보인다. 세상을 긍정적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만큼 타협하지도 않으며 살고자 했으나, 숲에 의지한 채 엉거주춤한 자세로 서서 슬즈정정으로 나날을 보내며, 세상과 맞붙어 싸우지도 못했고 짝짝꿍 타협하여 내 안일을 구하지도 못했으니, 어중이떠중이라는 말이 그럴싸하게 맞는 삶이었다. 어리둥절 해매는 파리와 같이 광막한 공간에서 버둥거리며 살아온 지난날들이었다.

잠시 나도 모르는 쪽잡아도 들었던 것인지, 꿈속에서 빗소리를 듣고 있는 것만 같아 눈에 힘을 주고 앞을 보았다. 세상은 여전히 조용한 가운데 촉촉이 젖었다. 집 앞 뽕나무 가지가 어두운 빛으로 젖은 채 물방울 구슬들을 몸 아래에 매달았다. 눈은 나뭇가지 위에 쌓이건만 비는 가지의 아랫부분을 잡고 땅을 향해 매달린다. 눈이 나뭇가지를 적시지 못하는 이유다. 그런데 잠자고 있는 나무를 적셔서 어찌 자는 말인가? 눈송이처럼, 그저 아무런 생각도 없이 살짝 가지 위에 내려앉은 것이 오히려 좋은 일 아니던가? 겨울나무에겐 비보다는 눈이 맞출다. 그렇기는 하나 별거벗은 가지들에 맺힌 빗방울을 바라보는 맛도 썩 썩 좋으니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한다는 것이 민망스럽다. 겨울비가 오는 날은 비가 땅으로 스며드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침묵해야 하는 까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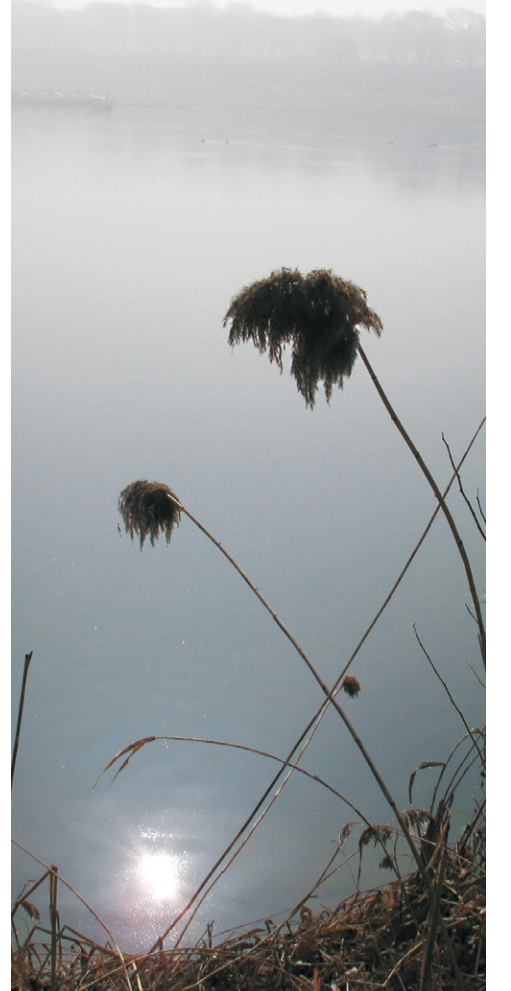
불현듯 빗줄기가 굵어지면서 빗소리가 나를 감싼다. 깊은 세상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 나무의 뿌리들이 금방이라도 몸을 움직여 나뭇잎을 괴워낼 것만 같다. 창밖을 바라보고 있자니 내 가슴에도 차오르는 기운이 느껴진다. 땅 속 깊이 찾아드는 것들로 꽉 찬 세상에서 가라앉지 않고 떠오르는 이 기운은 어디에 있던 것일까?

나무 울조리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인간 세상은 10년 전이나 혹은 20년 전이나 30년 전과 다를없이 뒤숭숭하고 어둡다. 학교 근처 공터 옆을 지나다 불

량배들에게 걸려 집단 폭행을 당하다 의식을 잃었던 중학생 시절의 어느 날도 잠시 전의 꿈인 듯 선명하고, 군사 독재자의 그늘이 짙던 시절에 군인의 불신 검문 앞에서 공손하게 굴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출소에 끌려가 피범벅이 됐던 시간도 내 옆에 붙어 있는 것만 같다. 국가를 위해 청춘을 바칠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한순간이나마 포근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을 지도 모른다. 감옥에 가기는 군대에 가는 것보다 더 싫었기 때문에 군대에 가서 보낸 젊음의 날들도 바로 어제다. 민주화가 됐다고, 세상이 좋아졌다고 말하는 사람들로부터 느끼던 거리감을 좀힐 틈도 갖지 못했던건만 자본의 독재가 시작됐다는 말이 들려오고 있는 시절이다. 장애물을 하나 넘으면 또다른 장애물이 앞을 막는 장애물정기가 끝없이 이어지는 가운데, 흘러오고 흘러가는 세월이 보인다. 그 속에 내 모습도 보인다. 빗소리가 무겁다. 벗어날 수 없는 삶의 이 무거운.

군청에서 나온 봉투 하나를 건네고 비를 맞으며 가던 이장의 뒷모습에도, 집 앞 길을 지나가던 아주머니 둘의 두런두런 이야기 속에도,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의 얼굴에도, 읊대로 나가 하루 일을 마치고 돌아온 아내의 얼굴에도 겨울비의 무거움은 스며 있다. 그들 또한 나와 같이, 지금 내리는 이 비와 다를 것 없는 존재들이 아닌가?

겨울비의 이 무거움과 어두움 속에서 봄날의 푸르름이 싹튼다고는 해도, 그 새싹들에서 맑고 밝은 빛이 번져나와 세상을 가득 채운다고는 해도 지금은 겨울비가 내리는 날, 가만히 빗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멍청히 하루를 보낸다.



유승도

시인. 1960년 충남 서천 생. 1995년 문예중앙 신인문학상 시 내의 새로 등단. 시집 <작은 침묵들을 위하여>, 산문집 <촌사람으로 사는 즐거움> <고향은 있다>.

新제품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그을음 없는
삼환양초를 선택하십시오!!!

국내 유통중인 모든 양초 제조, 판매

14-1 일본산 후리지아(해단) 13-1 일본 영원향(소바라) 13-2 일본 영원향(소바라)

2-1 아광용 빙크 70 x 35cm / 2-2 일남초 반야심경 70 x 35cm / 2-3 속향초-아광용 70 x 35cm / 2-4 봉황새 전사지 70 x 35cm

7-1 P.C 컵 일남초 반침대 / 7-2 P.C 컵 일남초 연소시간 약 8시간 / 7-3 바람막이초

5-1 웨딩초 육각초 70 x 45cm

15-1 액체 파라핀 180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net

전화 031) 766-0242~3
팩스 031) 766-023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현리 35-16
소비자 무료전화: 080-0766-8888
*주문하시면 택배로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